



[보도자료]

장애인 승객 비행 환경 개선된다

- 제 75 차 IATA 연차총회 결의안 채택 -

서울 (2019년 6월 2일) -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이하 IATA)는 제 75 차 연차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전 세계 10 억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인 승객의 항공 여행 환경 개선안을 승인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 IATA 는 항공사들이 장애인 승객에게 안전성, 신뢰성 및 존엄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당부하고, 각국 정부가 IATA 가 세운 장애인 승객 서비스에 대한 핵심 원칙을 따르도록 촉구한다. 이는 장애보다는 접근성과 포용성에 초점을 맞춰, 여행 업계와 정부가 승객들에게 명확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규제를 제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 (Alexandre de Juniac) IATA 사무총장 겸 CEO 는 “50 년 전, 항공사들은 이미 시대를 앞서 장애인 승객의 항공 여행 접근성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는 이에 맞춰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장애인 승객이 안전하고 존엄성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업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ommercial Aviation Organization)이 각국에 장애인 승객 접근성 관련 이니셔티브의 근간으로서 IATA 의 핵심 원칙을 적용하기를 촉구한다. ICAO 가 핵심 원칙을 적용하면 각국은 비슷한 관련법 및 규제를 적용해, 승객 및 항공사에게 적용하는 규제의 혼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휠체어 지원

48 개 항공사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휠체어 지원 요청 건수가 2016 년에서 2017 년 사이에 30% 증가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와 공항은 휠체어 지원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가용하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동력은 있으나 규모가 큰 공항 시설 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승객 대상으로 제공할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공동 노력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 승객은 자신의 이동보조기기로 여행할 때 보관 중 이동보조기기의 손상을 가장 많이 우려한다. 항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승객, 공항, 지상 운용 인력 및 규제 당국과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승객의 이동보조기기 적재와 관련한 표준 절차 마련을 검토 중이다.

드 주니악 사무총장은 “장애인 승객 상당수가 이동보조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손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심각하거나, 경우에 따라 트라우마로 남을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 승객이 이동보조기기가 손상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 믿고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미디어 문의

[IATA]

Albert Tjoeng / Assistant Director, Corporate Communication AP / tjoenga@iata.org

[국내 홍보 대행사 케첨] SKR-IATA@ketchum.com

신혁수 사원 / David Shin, Account Executive / 02-559-9603

김승윤 사원 / June Kim, Account Executive / 02-559-9627

김성이 부장 / Sunny Kim, Account Director / 02-559-9621